

재가자 역할 확대될 때 불교발전 가능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의 대화' 주제로 학술대회

남방 상좌부 불교 국가에서 재가불자들의 역할과 한국불교에서 재가불자들의 역할을 비교 고찰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1월 9일 부산 동명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가 개최한 추계 전국학술대회에서 '상좌부불교와 한국불교의 재가불자 역할 비교' 발표를 통해 한국과 스리랑카, 미얀마 등의 불자들의 활동을 비교하고 한국불자들의 새 역할을 주문했다.

자력으로 진행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행주좌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교수는 "반면 한국 재가불자는 염불, 절, 간경, 사경, 독경, 화두참구 등을 수행하며, 출가자의 수행과 분리되거나 타력에 의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상좌부전통의 수행법이 서구 사회에 전달돼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부분을 들며 수행에서 출세가의 수

상좌부불교서 보시 의무만큼 법보시 부족한 보시 사찰 기록 치중 요인

상좌부 출·재가 수행법 서구에 영향

행법이 공유됨은 불교의 사회 적용에도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상좌부불교 중 재정투명과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불교가 배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상좌부불교의 재가불자들은 사찰운영에 직접 관여하며 오히려 출가자 참여를 제한하는 반면 한국의 재가불자들은 대다수가 사찰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근 꾸준히 제기되는 한국 불교 개혁 방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재가 불자의 사찰운영 참여"라며 "하지만 지속적인 요구에도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그 권한이 출가에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2006년 8월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에서 출세가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

한국불교 자체가 출가자의 역할에만 기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그 극복을 재가자 스스로의 변화와 역할 확대에서 찾았다.

정 교수는 "재가자는 출가자 없이도 불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며 "재가자 스스로 수행과 전법의 의무를 다할 때 불교의 진정한 변화는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 교수는 '티벳문헌에 나타난 정중 무상에 대한 연구' 발표에서 8세기 후반 티베트 삼예사 논쟁에서 마하연 선사가 전한 돈오선법에 정중 무상 선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바세(6Ba bzhed))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사료들과 문헌에서 출토된 펠리오 티베트 사본 No.116을 근거로 정중 무상선이 티베트에도 전해졌음을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려 선불교 확산에 茶가 한 몫

日, 동아시아차문화심포지엄서 박동춘 소장 밝혀

9세기 신라에 전래돼 고려시대에 전성기를 맞은 차문화 확산이 선불교 교세확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사진)은 11월 12일 도쿄 오후라호텔에서 열린 제7회 동아시아차문화 심포지엄에서 한국대표로 참가해 고려시대 차문화 확산에 대해 조명했다.

박 소장은 "당대 다법이 고려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신라시대 차문화 전래와 선종계열의 입당구법승들에 의한 것이었으며, 구산선문 개창과 영향력 확산으로 차의 효능을 이해하고 마시는 계층이 크게 늘어났음을 주장했다.

박 소장은 "신라 말, 유학 선승들이 귀국하며 수행생활에 필요한 차를 가져온 이후, 신라왕실과 승려들에게 당의 다법이 알려졌으며 왕실과 귀족층들은 차를 매우 귀하게 여겨 선진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12세기 고려시대를 다법이 가장 발달한 시기로 꼽았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왕실에서는 팔관회나 수륙제에서 왕이 직접 차를 가는 등, 차를 가장 귀중한 공양물로 부처님께 올린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왕이 공신들에게 용봉단이 나 대차를 하사했던 것으로 보아, 중국 차 뿐만 아니라 토산차가 생산됐을 수도 있다. 박 소장은 이런 한국차의

신라 말 선종 대당유학승들 전래
잠 깨우는 효능 수행에 활용돼
고려 지도층에 영향, 수륙제에 사용

시원을 도의 스님 등 구법승들이 주로 활동했던 중국 감서 지역의 다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다법이 당시 격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교수행을 비롯해 당시 차문화에 담긴 정신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며 "박제화 된 문화재로서의 차가 아닌 현대인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차문화 발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진홍원, 제4회 원효학술상 공모

대한불교진홍원(이사장 김규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제4회 원효학술상을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등이다.

공모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발표된 것이다. 접수기간은 2013년 1월 2일 ~ 2월 29일 까지이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광덕 스님 대학생 전법 연찬회

광덕 스님의 종단활동과 대학생 전법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1월 17일 오후 2시 잠실 불광사 교육원 강당에서 제16차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광덕 스님의 종단 활동과 대학생 전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김

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광덕스님의 종단활동과 조계종'을, 한상길 동국대 연구교수가 '광덕스님의 대학생 전법과 대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또 김영 동방불교대 교수, 이종수 동국대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추계 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는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경제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재해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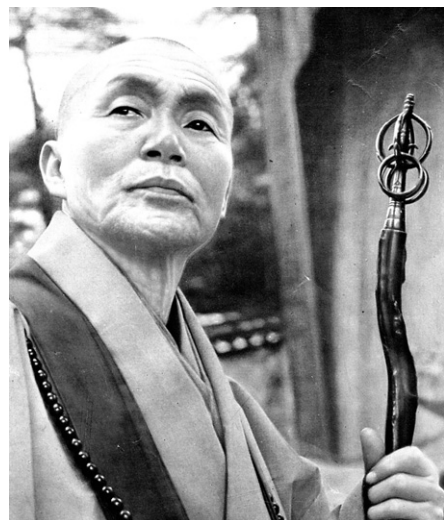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는 박경준 동국대 교수가 '불교의 경제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자람 동국대 연구교수의 '불교에서 본 소

유와 분배',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 '연기 자본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코피티션 이론 비판과 화쟁경제학', 남찬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사찰 및 재(財)공양 법(法)보시의 경영학적 분석'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청담 스님, 지계로 시대회통한 정화보살”

청담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서 지계정신 고취 목소리 모아져



철저한 지계정신을 강조한 청담 스님.

한국 근·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계율에 근거한 정법불교를 정화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청담 스님의 지계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서익구)는 11월 9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11회 청담사상 학술세미나를 열고 '청담조사의 지계사상'을 주제로 열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한국불교의 계율전통에서 본 청담조사의 지계사상' 발표에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먼저 청담 스님의 지계사상은 의상과 용성, 석전 스님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엄격한 계율전통을 잇는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원효와 경허의 무애행으로

상징되는 한국불교의 계율전통과 의상과 용성, 석전 등의 엄격한 지계로 상징되는 계율전통 사이의 긴장은 우리 불교가 통불교적 성격을 지니면서 피할 수 없는 논쟁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일제에 의해 무너진 계율을 중심에 두고 불교 개혁과 불교 대중화에 온 몸을 바쳤던 청담 스님의 지계정신은 계율전통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계를 넘어 무애행까지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우리는 출가자의 계율문제에는 엄격하면서도 재가자 계율문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며 "민중자본주의 시대흐름과 계율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흐름을 어떻게 하면 부

처님 정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담조사의 계율관' 발표에서 청담 스님의 계율관과 지계사상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 김진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계율정신의 강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청담 스님은 계(戒)·정(定)·혜(慧) 삼학의 균수를 통해 시대문제를 회통한 정화보살"이라고 평하며 "정법의 대중화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그 서원의 삶을 현재 불교인들은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와 최성렬 조선대 교수도 청담 스님의 정화운동의 핵심은 계율의 확립임을 들며 대중들의 지계정신 고취를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단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를 웅장하고, 맑은 소리로 바꾸어 드립니다

➔ 방법 : 앰프와 마이크 또는 스피커와 마이크 등 좋지않은 장비를
고급 신형 제품으로 교체 해 정엄한 소리를 보시하겠습니다.



파워덱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 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 로
개조 해 드립니다. (빠-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 특징 : 지체 제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교의식 학인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7기생)

팔공불교대학에서 초심자라도 불교의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 ◆ 개강일시 : 2012년 11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7시 ~ 10시)
-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 접 수 : 2012년 11월 25일(일요일)까지
- 1 교육 과정 (내용)
도량식, 중송, 향수해제, 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각단불공
- 2 재의 시식편
천도재, 시달림, 방생의식, 관음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범음범패와 의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3 사 들 : 북, 태징, 목탁, 요령

- ◆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대구시 동구 도동 44번지(팔공 IC 5분거리)
☎ 053)986-1080, 010-9361-5566

팔공 불교 대학 학장 일관 합장